

15年の 유희

Amusement of 15 Years

류익현 /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 · 원
by Rhyu Ick-Hyun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5년여의 사무실생활을 잠시 쉬고 프리랜서격으로 참여했던 독립기념관 건립위원회일이 끝나가는 83년 봄, 그간 모셨던 김소장님께서 마침 재미있는 현상설계가 있으니 참여해 보라는 권유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대졸초년에 잠깐씩 참여한 경우를 빼고는 현상설계를 접해 본 일이 없던 참에 한다면 방까지 빌려주시겠다는 호의까지 있고 보니 의욕이 솟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는 이미 참가자신청이 끝난 시점이었지만 해외건축가에 한해 참가신청을 늦게 받는 규정에 의해 마침 귀국해 계시던 선배님명으로 어렵게 현상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동안 무엇을 믿고 건축을 한다고 해 왔는지 의아할 만큼 막연한 상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체계화된 논리는 커녕 그만큼

쌓여온 건축계의 자산에 대한 지식도 곁핍기 뿐이었던 채 막연한 자만과 의욕에 내몰린 한편 마담이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청춘은 오히려 그래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한달도 안되는 작업날짜와 두명의 후배가 전부인 상태에서 초조한 낮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십여일 반복되던 어느날, 그래도 당시로서는 그럴 듯하다 싶은 배치스케치 한장이 만들어졌다.

단지 중앙에 심볼릭한 원통형 아파트를 배치하고 그 주위를 굴곡된 판상형 아파트의 크러스트로 결합하여 둘러싸므로써 파도치는 생동감을 부여한다는 기본구상은 다분히 즉흥적인 발상이었지만 생각할수록 기본좋은 구상이었다.

그간의 막연하고 답답하던 감정은 안개가 걷히 듯 사라지고, 이리저리 펼쳐지는 구상의 전개는 희열로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도면에 옮겨지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다. 중앙의 원통형 아파트의 좌·우측 세대들의 향이 좋지 않은 것과 원주상에 배열되는 각실들이 장방향을 유지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단지를 사방으로 에워싸는 배치이다보니 아파트의 주면이 사방으로 펼쳐져 우리나라에서 항시 중요하게 생각한 일조방향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원통형 아파트의 경우 각 침실은 장방향을 유지한 채 리빙존만 부채꼴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주변의 아파트군은 사선방향의 실배치에 의한 조합방식으로 일조조건이 충족되었다.

올림픽 스타디움쪽의 메인도로로부터 부채꼴의 조형광장을 통해 아파트단지로 흡입되는 오픈 스페이스의 디자인도 재미있게 처리된 듯 싶었다.

항상 그렇듯이 나중에 보면 유치한 구석이 많지만 작업당시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는 듯 싶다.

그러나 즐거운 희열도 잠시뿐, 막상 도면 작업에 들어가보니 이것은 초년병 셋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면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던 원군들이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 되는 바람에 마감날에 즈음하여 완성된 도면은 전무한 상태였다.

있는 도면, 없는 도면을 무작위 축소, 확대하여 도판을 메우는 긴급작업과 제출창구를 붙드는 지연 작전속에 가까스로 제출했던 절박한 기억도 이제와선 그 또한 재미있는 추억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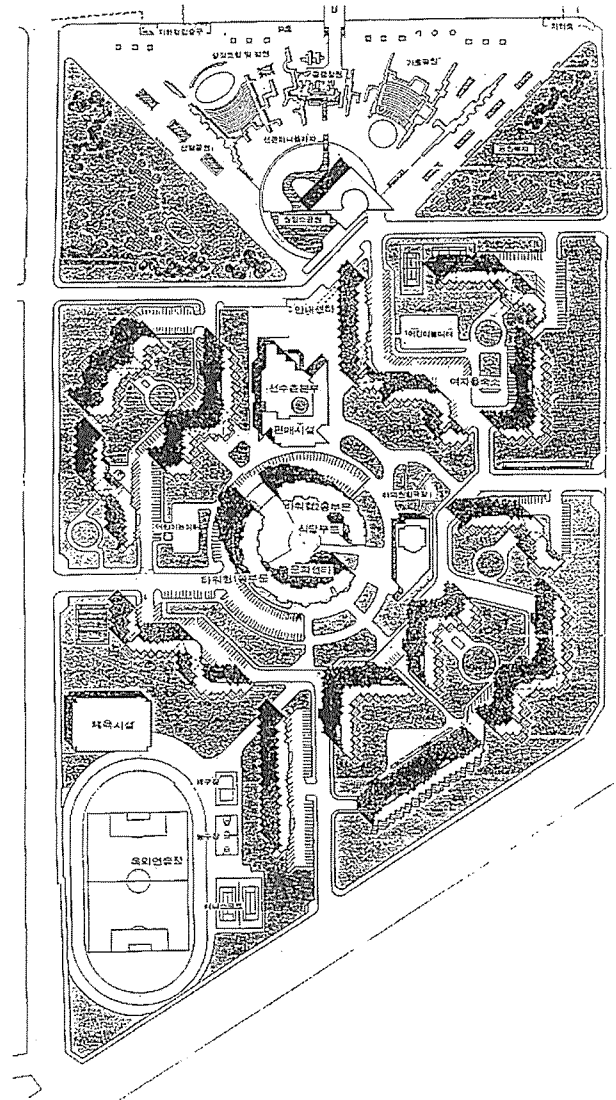
아마추어로서도 낯 뜨거운, 그것도 케케묵은 옛날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는 이유의 하나는 짧은 시간속에 교차된 흥분과 좌절 등 나름대로의 드라마와 함께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됨으로써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행인지 불행인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험난한 도전의 세계에 뛰어들어 십오년에 걸친 유희를 시작하게 된 계기일 것이다.

올림픽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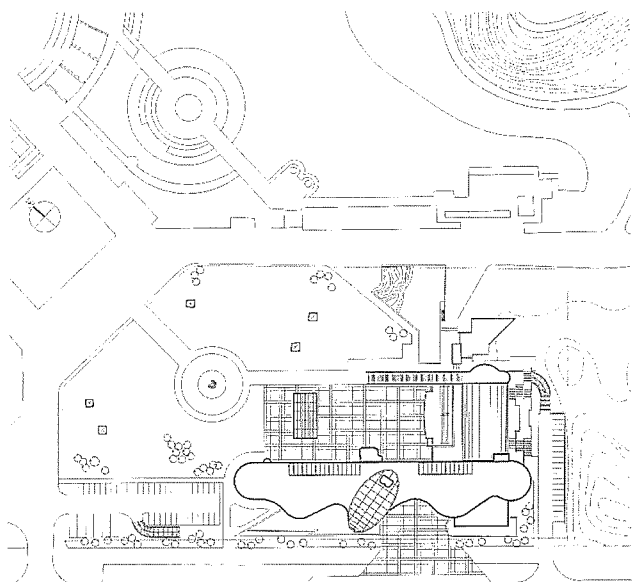
모든 건축이 그 자체, 문화이긴 하지만 협의의 문화성을 갖는 건축은 대부분 현상설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96년에 시행된 올림픽 기념관도 그런 유형의 건물로 상업성 위주인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프로젝트였다.

민족적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인의 거대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세계와 함께하는 시대적 상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가 나름대로의 숙제였다.

문화적 건물이라해도 몇몇가지 유형으로 정형화된 우리 현실에서 이 프로젝트만은 그것이 갖는 세계지향의 이미지,



아시아 신수촌아파트 종합계획도



올림픽기념관 배치도

역사적 사건을 표상하는 시간적 이미지로 하여 독특한 구성과 형식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건물이어야 했다.

마침 십년전 올림픽 상징 조형물 현상을 함께 했던 파리의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문화와 건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그간 많이 느꼈던 것이지만 이번 작업에서도 우리가 갖는 주된 관심이 공간과 형태인데 반하여 파리 친구들이 갖는 관심은 시스템과 장치라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면은 심하면 괴리될 수도 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충분히 상호보완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여졌다.

올림픽 상징문을 중심으로 한 기념광장과 중앙호수를 낀 몽촌토성에 면한 북측면을 구조물이 아닌 공간으로 설정하여 장방형의 상징광장으로 놓고 도로변의 주건물과 이에 대응하는 보조적 구조물로 광장을 에워싸는 방식에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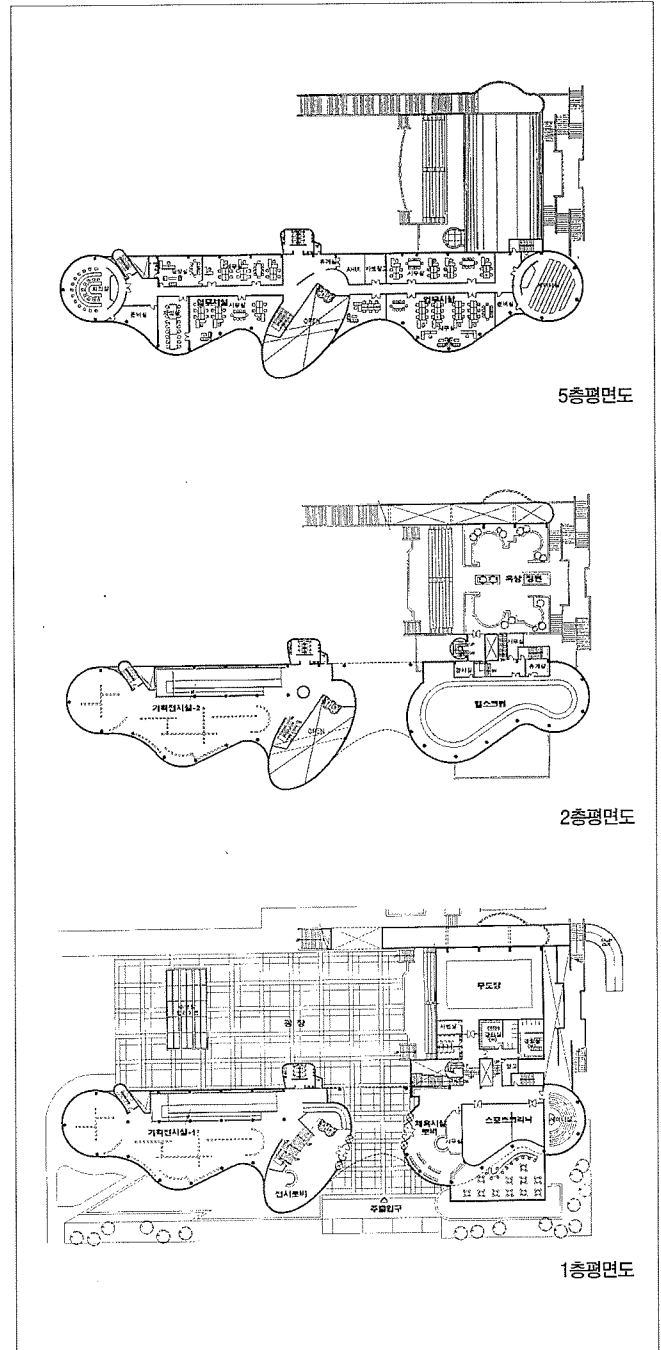
거의 모든 구조물이 공원 내부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장대한 공원의 한면에 입간판과도 같은 주건물을 도로측에 면하여 배치함으로써 극도의 대비감을 통한 도시의 상징성을 추구한다거나 인간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올림픽정신을 상징하여 무한히 뻗어가는 계단형상의 보조적 구조물을 담의 개념으로 처리하는 방식에도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주건물을 도시와 호흡을 함께 하는 동시에 휘황한 빛의 발산체로 하고자하는 의도는 주기능이 전시시설과 체육시설인 상황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파리건축의 대중을 이루는 유리벽의 다양한 처리기법들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짧은 거리가기는 하나 도로측에서 진입공간을 설정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도 상당한 개념차를 느끼게 하는 문제였으나 긴시간 지체된 것은 결국 주건물의 형태가 만족스럽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었다. 마감이 임박한 즈음에 불현듯 장방형의 주건물을 오륜의 다섯원을 지그재그로 펼침으로써 파도치는 굴곡면으로 구성하는 아이디어가 튀어오르면서 모든 문제는 일순에 해결되는 듯 싶었다.

파도치는 유리면 자체의 조형도 그렇지만 그것이 갖는 상징성도 다채로웠고 그 면이 유리로 처리되면서 전시벽과 우리의 이중적 파노라마 역시 예기치 않은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에 가벼운 흥분마저 일었다.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많은 논의와 고민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동시에 순차적인 발상의 형식으로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과정의 즐거움이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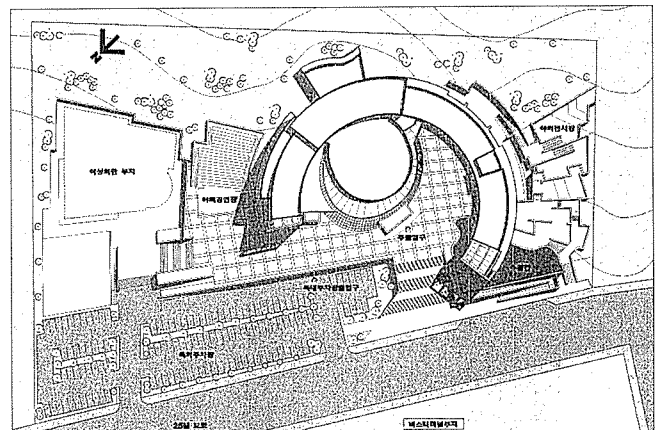


5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올림픽 기념관



포천문화회관 배치도

포천문화회관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 기초적인 분석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 후에야 안의 윤곽을 잡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하여 프로젝트의 개요를 보는 순간부터 방향이 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초에 작업한 포천문화회관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완만한 자연적 경사의 리니어한 구릉 일부리는 지형적 입지와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한 규모의 단순성등으로 인하여 복잡한 구성보다는 직선구성에 대비되는 원통형 구성을 제안하고 싶은 충동이 프로젝트를 보자마자 일었다.

산록면에 깊이 박혀 일체화되면서도 횡으로 넓게 펼쳐진 구릉면에 원형으로 대응함으로써 단조로운 지형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 할 수 있는 동시에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문화회관이면 늘상 갖게 되는 처마와 기둥의 전통적 양식을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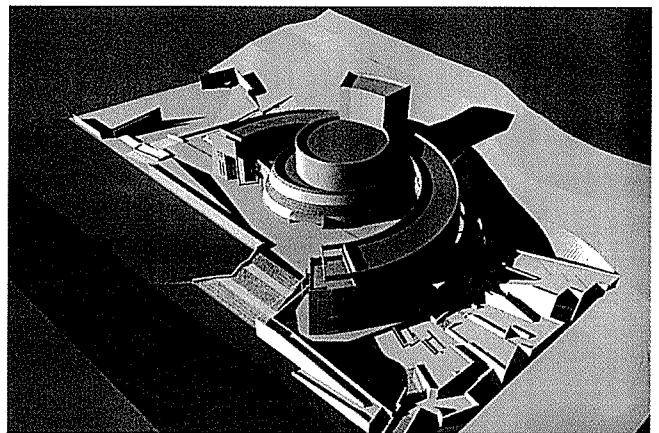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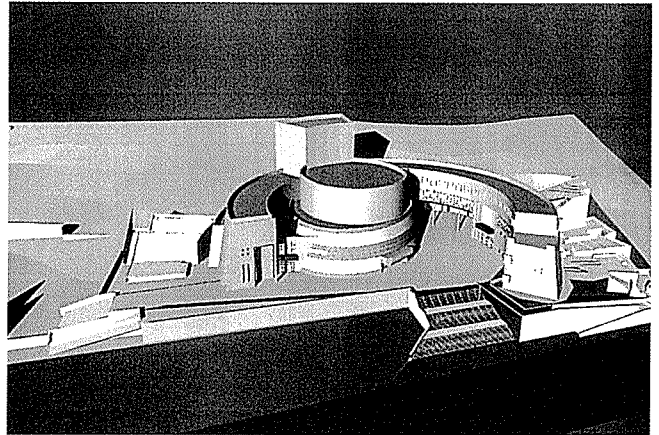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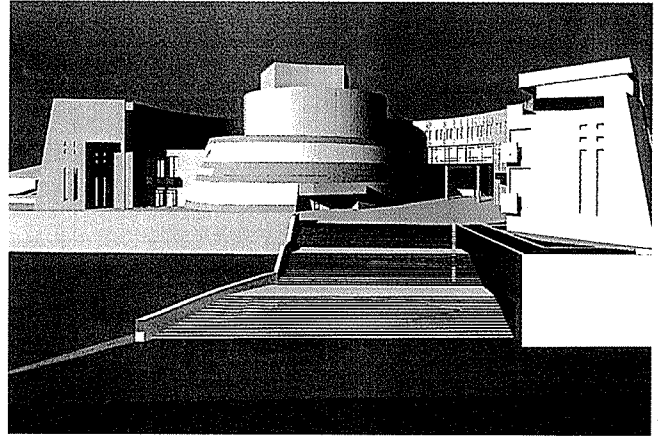
문화회관의 공연장이란 기능이 갖는 평면적 제약을 어떻게 풀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측부대와 본부대로 연결되는 레일을 커다란 원호상에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원통형 문화회관 구성은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었다.

원통형 본 건물내에 나름대로의 중정을 구성하고 도로에 면하여 파상의 진입광장 및 주차장을 배치하는 외에 이에 연하여 계단식 정원을 배치함으로써 원형의 주건물 매스와 파상의 직선적 단지구성이 또한 대비적으로 어울리는 듯 했다.

너무나도 주저함없는 일사천리의 작업인지라 너무 단순한 발상의 경솔함이 아닌가하는 자괴심도 있었고 작업결과의 매스구성에 밸런스가 안맞는 문제등도 보였지만 미흡한대로 그 땅에는 그런 유형의 건물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우연한 계기로 아시아 선수촌 현상을 시작한 이래 십오년의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오늘에도 여전히 돌발적인 충동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거나 직선과 원형의 대비에 천착하는 등 유사한 성향속에서 있음을 최근 수행한 작업과정을 돌이켜 보으로써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도 여전한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마무리가 결코 쉽거나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희열하고, 나름대로 몰두하는 것으로 한편으론 유아적인 탐닉이라 자괴할 부분이기도 하나 이 또한 쟁이로써만이 가질 수 있는 꾸준한 유희라 소중하게 여겨지는 점이다.



포천문화회관